

언어와 인생을 함께 배운 교환학생프로그램

계명대학교

허기련

교환학생을 오기 전 저에게 일본이란, 가깝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여 여행하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여러 번 가족,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꽤 자신감을 갖고 왔습니다.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 정도는 겪을 것이라는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는 것은 관광객으로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활하면서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을 모두 경험했고,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모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오차노미즈 대학에는 없어서, 그나마 연관 있는 강의를 찾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글로벌 문화학환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인, '일본어 실력 향상'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차노미즈 대학의 실력 있고 친절하신 교수님들께 전문적인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일본 국내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 4 개우리동안 도쿄 근처의 가나가와부터, 간사이, 아이치현, 홋카이도를 여행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많은 여행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곳을 떠나 가족과 친구 없이 혼자 살아남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매너를 배우고 여러 규칙에 적응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지식과 추억, 새로 사귀 소중한 친구들에 비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즐겁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분명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일본에 올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교환학생 때 배운 것을 덕분에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제가 언제 이렇게 큰 도시인 도쿄에서 다시 살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23 살 저의 도쿄 생활을 생각하면 열심히 살 동기가 될 것입니다.

원만한 유학생생활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돌아보기 시트에 진심 어린 응원과 피드백을 남겨주신 코바야시 교수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먼저 연락해주고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준 튜터 노무라, 여러 유학생 프로그램을 열어 주신 국제과의 모든 분들, 안전하고 깨끗한 기숙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오토와관의 관리인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